

불보다 뜨거운 이웃사랑... “산불 피해 아픔 함께 나눠요”

광주·전남자원봉사센터 영남권 구호키트·급식비 후원 28~30일 순천 밤차·인력 지원...매 끼니 400인분 조리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과 산불진화대에 힘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온정의 손길이 영남 지역을 덮친 산불 화재 현장에 속속 전달되고 있다.

전남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17명도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경북 안동용상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등을 해 온 강희준씨(50)는 “평소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해 제주항공 참사가 났을 때도 3일간 밤차 봉사를 했다”며 “27일 저녁에 순천자원봉사센터에서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다음날 오전부터 조리기구, 식재료를 준비해 오후 늦게 안동에 도착해 끼니당 400인분을 조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먼저 도착한 전주 자원봉사센터와 힘을 합쳐 저녁 준비를 도왔다.



순천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경북 안동용상초등학교에 밤차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진은 도시락을 만들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

강씨는 여러 자원봉사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같이 힘을 냈다. 강씨는 “이제민들이 안전부질 하는 모습

아니지만 먹고 힘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안동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방 4개를 지원해 잠자리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밤차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주불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했다”고 언급했다.

광주시·전남도자원봉사센터에는 봉사활동 또는 나눔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센터는 ‘산불 진화 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안내하기 어렵다’란 알림을 띄우고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사전 활동 신청을 받고 있다.

전남도자원봉사센터는 산불 재난 지역에 5t 세척차 1대와 자원봉사자를 보낼 예정이다.

류미수 광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이제민이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며 “일상 회복을 위해 현지 센터와 협의해 자원봉사자 모집, 급식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길 전남도자원봉사센터장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현장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이제민 대다수가 연로한 어르신이다 보니 자원봉사자의 손길과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기업·기관 후원금 받아 경남 산청군과 경북 청송군에 재해구호키트와 김치, 컵라면, 식용료, 경북 안동시에 급식비를 후원했다. 전남도자원봉사센터는 경북 안동시에 피로회복제 100개, 클렌징타수 300개를 지원하고 밤차 1대를 투입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 서구가족센터, 양동서 ‘새출발’

양동시장 내 위치...다문화 거점 플랫폼 기대

광주 서구의 다문화 거점 플랫폼인 서구가족센터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서구는 최근 서구가족센터가 이전 사업을 완료하고 양동에서 개소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서구가족센터는 결혼이주민들의 한국 생활을 지원하는 거점 플랫폼으로 다양한 교육과 체험, 교류와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하지만 센터가 외진 곳에 있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센터 내 공간이 협소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많았다.

때문에 서구가족센터 이전의 필요성과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서구의 오랜 숙원이던 센터 이전 사업은 지난 2023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현장 민원 청취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센터 개소 이후 처

음으로 결혼이주민 100여명과 전체 건담회를 개최, 이용자들의 불편함과 개선 사항을 수용해 이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센터는 가족 돌봄, 상담, 교육 등 기존 프로그램 외에도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취업 연계 프로그램, 자녀 교육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착한도시 서구’의 지향점이다”며 “앞으로도 포용과 신뢰의 행진으로 서구민 모두가 행복한 ‘함께 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펜싱 국가대표에게 배우요” 29일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 펜싱훈련장에서 열린 ‘가족 함께하는 펜싱교실’에 참여한 주민들이 국가대표 강영미, 김재원 선수 등 서구청 펜싱팀으로부터 펜싱 이론과 기본 자세 등을 배우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동구, 지역 문화유산 보존·정비 총력전

사업비 8억 투입...증심사 공영관 건립 등 추진 무등산 주상절리대 조사·서석초 체육관 보수도

광주 동구가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존·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30일 동구에 따르면 지역 주요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유지하고 문화유산을 찾는 시민의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8억원을 투입한다.

추진되는 문화유산 사업은 총 4건으로 광주 증심사 공영관, 무등산 주상절리대, 지산동 오층석탑, 광주 서석초 체육관 등이 대상이다.

이중 총 3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증심사 공영관 건립 설계 사업은 오는 5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관련 기관 사전 협의를 거쳐 6월부터 공영관 건립 설계 용역을 진행한다.

천연기념물인 무등산 주상절리대 기록화 조사도 진행된다.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임석대와 서석대의 돌기둥 하나의 크기가 지금까지 남한에서 보고된 것 중 최대 크기라 주목받고 있다. 2018년 정지태·모니터링 결과 일부 구간에 변형·전도, 풍화, 붕괴·낙화 등이 확인됐다.

동구는 총사업비 2억원(국비 1억4000만원·시비 6000만원)을 투입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도면 작성과 3D 스캔 등 용역을 추진해 그 결과를 기록화한다.

향후 붕괴위험 예측과 보존 대책 등을 수립해 문화유산 보존과 등산객의 사고 예방에 나선다.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보물) 주변 발굴조사는 지난해 광주시 문화유산위원회

에서 학술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뤄진다. 사업비 1억원(국비 7000만원·시비 1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7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층석탑 주변 당시의 유구, 유물을 발굴하면서 불교문화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확인한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광주 서석초등학교 체육관은 1930년 건물 내부에 기둥을 설치하지 않은 점이 특징으로, 동구는 체육관 내부 바닥 마루 보수 공사를 추진해 문화유산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총사업비 1억5000만원(국비 7억5000만원·시비 3억7500만원·구비 3억7500만원)을 투입해 오는 7월 착공을 한 뒤 올해 12월 중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구에는 보물 4점, 천연기념물 1점, 광주유형문화유산 6점, 광주무형문화유산 1점, 국가등록문화유산 6점 등 총 25점 문화유산이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N-NEXUS
N넥서스 시리즈는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엔지니어의 IT 기술이 탑재된 자사의 브랜드입니다.

NHNETWORKS

연구 & 개발: 통합운영체제, 지능형 영상처리 솔루션, 핵심기술 솔루션
제조 & 제작: 주·원래 단위 및 CCTV 시스템
E S S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및 LED 조명 시스템, 구조물 및 형상설계, 아미비 안전 영상 보조 장치
설계 & 지원: 유·무선망 컨설팅, 서버/네트워크, 영상처리, 보안·지능형영상·영상처리 시스템
유지보수 & 관리: ICT 장비, ICT 운영 및 유지보수
시공 & 설치: 정보통신공사, 서버실/비서실, 광학 ICT 분야 설계, ITS 설계, 열차부서 시스템, 핵심기술사업자

TEL 062-719-1060-2

남구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 스포츠 ‘거점’ 연 이용자 3만명...특성화 프로그램 수명 인기

광주 남구 반다비체육센터가 개관 1주년을 앞둔 가운데 연간 이용자가 3만명에 이르는 등 광주권 장애인 생활스포츠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전국 최고 시설로 지은 남구 반다비체육센터가 4월1일 개관 1주년을 맞았다.

남구 반다비체육센터 이용 현황을 보면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까지 전체 이용자는 2만 9255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2437명이 이용, 올해 3월 한 달간 이용자 수까지 합산하면 3만2000여명을 거뒀다. 남구 반다비체육센터는 운영하면서 개관 1주년 동안 눈에 띄는 대목은 전체 이용자 4명 중 1명은 장애인이라는 점이다. 장애인 7510명(전체 이용자 25.7%)이 수영과 아쿠아로빅, 보치아, 배드민턴, 탁구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 센터가 장애인 생활스포츠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도 남구 반다비체육센터를 찾고 있다.

현재 남구 반다비체육센터의 전체 25개 강좌 중 20개가 장애인 전용 강좌이다. 특히 어린이 특별반을 비롯해 수중 재활반, 초·중·고 장애인반, 주말 어린이반, 성인 기초반, 지적·자폐 장애인 특별반 등까지 수준별 강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전용 보치아 프로그램도 제공, 일주일에 다섯 차례씩 1년 동안 장애인 1580명이 운동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영진 기자 looks@